

베트남·태국... 아시아로 떠나는 '예술 로드'

‘ACC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

8~12월 문화정보원 교육실서
국수·커피 주제로 식문화 다뤄
전통염색 공예 ‘바틱’ 등 탐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아시아의 먹거리와 공예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ACC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을 8~12월까지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에서 운영한다.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은 신청 첫 날 20초 만에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 있는 ACC 전문 강좌로, 이번 교육과정은 아시아의 국수와 커피에 대해 알아보는 ‘ACC 아시아 의식주 여행’과 공예와 문자, 춤을 통해 아시아인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ACC 아시아 예술체험’으로 구성됐다.

먼저 ‘아시아 의식주 여행’은 인류학자 및 작가가 강의하는 문화체험 교육으로, 8월~11월까지 총 12회 진행된다.

첫 번째 교육은 ‘아시아 로드 시리즈’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 이기중 교수가 여행 기록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수를 소개하는 ‘아시아 국수 로드’ 강의로 시작한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수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24년 하반기-ACC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을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아시아 커피 로드’ 진행 모습. ACC 제공

남아시아 식문화의 특징 및 대표 볶음국수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국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어 두 번째 교육은 윤오순 작가가 자신의 여행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 커피 시장 속에서의 한·중·일 커피 산업의 역사를 설명하는 ‘아시아 커피 로드’ 시간으로 구

성했다. 특히 동아시아의 생두와 원두의 특성을 비교하고 직접 커피를 내려보며 카페에서 뛰어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ACC 아시아 예술체험’은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는 교육으로,

이번 강좌는 8~12월 오후와 저녁 강좌로 나눠 총 16회 열린다.

‘아시아 공예’는 아시아의 다양한 공예(바틱, 칠공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나전칠기의 예술적 특징과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고 직접 나전필함을 만들며 아시아 문화가치와 공존 가능성을

인식하는 교육이다. ‘아시아를 새기다’에서는 아시아 문명 속 문자와 인장(印章) 문화의 발전 과정과 전통 인장의 특성을 접할 수 있다. 또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나만의 인장을 제작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아시아를 이해한다.

‘인도네시아 공예’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염색 기법인 ‘바틱(Batik)’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이어 자신만의 문양을 디자인한 후 무늬를 넣을 수 있는 찬팅 도구와 왁스를 활용해 족자형 작품을 만들어본다. ‘아시아 예술로 나를 깨우기’에서는 인도 춤의 기원과 함께 인도의 전통 춤인 ‘까탁(Kathak)’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신에게 바치는 노래인 ‘스투티(stuti)’를 배우고 인도 전통 의상을 입은 후 까탁댄스를 체험한다.

참가비는 모두 무료로, 신청은 각 강좌별로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올해 하반기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편성했다”면서 “시민들이 아시아 문화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문화 다양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하룻밤’ 가족 캠프

내달 1일까지 참여자 모집

국립광주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참여형 과학캠프 ‘과학관에서 하룻밤’ 참여자를 오는 8월 1일까지 모집한다.

여름방학 특별행사 ‘과학관에서 하룻밤’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동안 운영하는 가족 캠프다. 참여자들은 과학을 바탕으로 한 가족 활동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가족 소통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도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이후에는 전문 해설을 포함한 공통특별전 ‘2024 다 이노 월드’ 야간 특별 개장을 즐길 수 있다. 또 천체투영관과 별빛천문대에서 가족이 함께 여름 밤하늘을 감상한다.

자세한 내용과 참가 방법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파주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 열린 홍천미술관 고 주재현 30주기 특별 순회전 ‘재히어니, 나는 죽었다’의 전경 모습.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제공

홍천미술관 순회전 ‘재히어니, 나는 죽었다’

30일부터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홍천 출신 천재 요절 화가 ‘주재현’

홍천미술관 고 주재현 30주기 특별 순회전 ‘재히어니, 나는 죽었다’가 오는 30일부터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전시는 홍천 출신의 천재 요절 화가 주재현의 30주기를 추념하는 특별 순회전으로, 대표작 20여 점을 비롯해 그의 생애 전반과 예술 활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다 큐멘터리 및 미디어아트까지 다룬다.

홍천미술관은 지난 2022년 30여 년간 주재현의 작품을 보관해 온 유족과 지인

으로부터 2491점에 달하는 원화를 기증 받았다. 이후 주재현의 작품 세계를 주제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주재현 30주기 특별 순회전을 기획했다.

전시는 뮤지엄호두(천안),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관훈갤러리(서울)를 거쳐,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광주)에서 이어지고 있다. 광주 전시 이후, 5회차 마지막으로 유니랩스 갤러리(부산)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전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관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8월 주말 여름밤 팡파르 ‘광주상설공연’

여름 기획공연 ‘청년국악콘서트’
창극·오페라 등 시립예술단 출격

광주예술의전당은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줄 ‘광주상설공연’을 연다.

공연은 매주 주말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이어진다.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청년국악콘서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미니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대가 이어진다.

먼저 8월 3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미니콘서트로 막을 올린다. 단원들은 전통 악기인 대금과 장구로 국악의 백미를 연주하고, 이어 꾀꼬리에서 영감을 받은 조선시대 궁중무용 ‘춘앵전’부터 국악가요 및 남도민요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신명 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8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여름 기획공연 ‘청년국악콘서트’가 열린다. 8일에는 원주에서 활동하는 국악인 그룹 ‘한국전통예술단 아을’이 강원 가락의 흥을 알리는 Variation(변주) 공연을 선보인다. 이어 9일에 ‘상자루’가 준비한 패기 넘치는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상자루’는 틀어 정해진 전통 상자와 모양이 변하는 자루의 결합으로 조선의 힙을 선보인다는 뜻이다.

10일과 24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이 무대에 나선다. 10일 ‘화조월석(花朝月夕)’을 주제로 24일에는 ‘음풍농월(吟風弄月)’을 주제로 한 무대를 꾸민다.

17일에는 시립오페라단이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선보인다. 1880년대 이탈리아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해피엔딩 희극으로, 싸구려와 인이 신비한 묘약으로 둔갑한 윤패·상쾌 로맨틱 콘서트 오페라이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함 해설로 누구나 오페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

31일에는 창단 48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립합창단이 ‘피아노로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무대에 선다. 단원들은 영화 ‘설국열차’ 등 다양한 OST와 가곡들로 음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의 울림을 전달한다.

매주 일요일은 민간예술 단체 판소리예술단 소리화와 황채는 무용단이 함께하는 ‘춘향, 그 후...’ 작품이 7월에 이어 무대에 오른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춘향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하는 춘향의 모습과는 다른 춘향의 모습을 그려낸다. 춘향이의 악몽, 몽룡을 그리워하는 춘향이의 모습 등 새로운 시각의 춘향전이 펼쳐진다.

2024 광주상설공연은 12월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시민로 3)에서 열리며, 모든 좌석(사전 예매)은 무료다. 자세한 일정과 예매 관련 사항은 티켓링크,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